

익산시, 청년내일저축 지원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기준 따라 정부지원금 월 30만원·10만원 3년간 가입자 모집

익산시가 '청년내일저축'을 통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성장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돋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하면 대상

지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된다.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

는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월 이상인 만5세~만 39세의 청년으로 기준에 차상위이하 계층 청년이거나 소득재산조사 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인 만9세~34세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를 제출해야 한다. 기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5월 1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2주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조직 적응을 돋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역량강화 교육

군산시가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조직 적응을 돋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전북신학융합원과 27일 베스트 웨스턴호텔에서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업 이해와 조직 적응을 돋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제조업·연구개발·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사업 참여 청년으로서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 코칭 △근로자

은 시가 주력 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정책을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지원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 자기개발비, 3년 차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며, 기업에게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2년간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지난 2022년도부터 사업에 참여 중인

박조미(부성산업) 청년근로자는

'타기

업의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기개발 등 역량강화에

힘써주시는 군산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업에서 필

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민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사업

지역 소식통

군산시, 어린이 날 기념
'어린이 큰잔치' 개최

다가오는 제10회 어린이날을 맞아 군산시가 주최하고 (사)삼동청소년회 군산지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큰잔치'가 오는 5월 5일 월드컵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 대면으로 시행되는 '제26회 어린이 큰잔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대형 이어비너스 놀이터와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투호, 유아 소방복 체험, 미니킹 심폐소생술 체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과 행사장 내 모든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나는 가수다. 나는 댄서다!' 무대를 운영해 자신의 끼와 재주를 맘껏 펼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개별토지 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접수

익산시내 공시지가 최고지가는 1㎡당 468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1㎡당 가격은 942원이다.

시는 1월1일 기준 개별토지 28만 9,52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6.73%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상황, 조세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익산시내 토지중 최고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1㎡당 4백68만 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서 1㎡당 942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익산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역사문화탐방 시티투어버스, 5월부터 시범운영

군산시가 군산의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연계해 새롭게 도입한 '군산역사문화탐방버스'를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군산역사문화탐방 코스는 오는 5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예약자가 5인 이상 있을 경우 매주 토·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1회 운행된다.

사전 예약제로 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한 전통놀이인 '지경놀이', '박트리

기 및 에어비온스를 운영하고 식물의 성장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식물성장체험 놀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료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기대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겨진 역사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이용요금은 1인당 5,000원이나, 초중고·경로·장애인·군인·유공자 등에 한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시티투어버스는 군산역사문화탐방지 도사 1인이 등승해 군산의 역사 유적에 대해 쉽고 재밌게 해설해주며, 이번 신규코스가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 정규코스로 편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코스를 통해 기존의 군산 대표관광지인 고군산군도나 시간여행미를 외에도 고즈넉한 멋과 다양한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군산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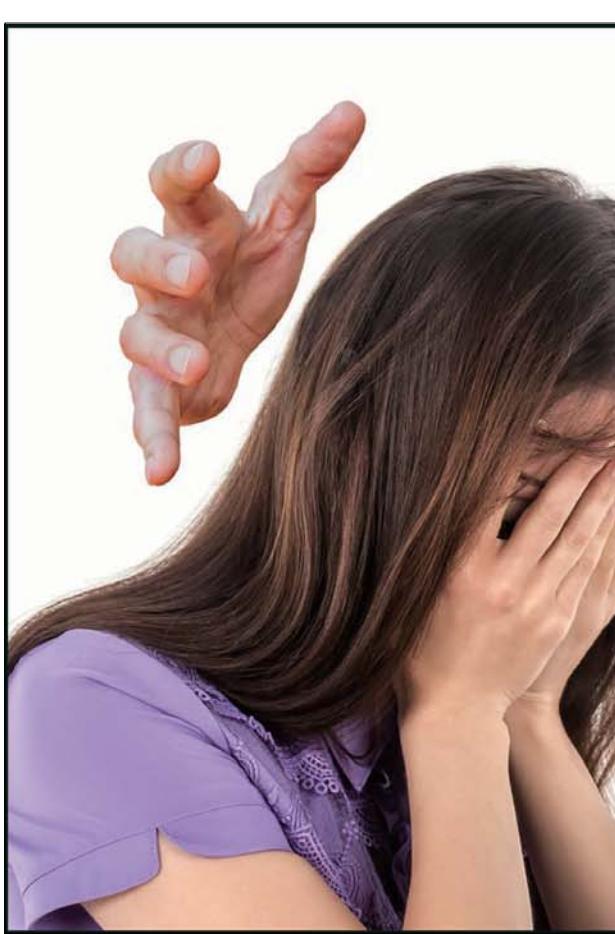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